흑백예술 탁본으로 보는 세계 불교미술

명주사 고판화박물관 추석 특별전
'흑과 백, 두드림의 예술–세계불교미술탁본 II'
9월 3일부터 18일까지

한·중·일 등 불교미술 탁본 50여 점
국내 최초 공개 인도 불교미술 탁본
중국 당 시대 〈묘법연화경〉 등 다양

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이 추석을 맞아 특별전을 개최한다. 9월 3일부터 9월 18일까지 2022 추석 특별전 '흑과 백, 두드림의 예술 - 세계불교미술탁본 II'이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불상이나 석탑 등의 표면에 종이를 대고 먹을 두드려 만든 탁본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에는 지난 2017년에 열린 '세계불교 탁본 전' 이후에 새롭게 수집된 한국, 중국, 일본, 인도, 캄보디아 등 다양한 국가의 불교미술 탁본 50여 점이 전시된다.

대한불교진흥원의 4기 불교기관 단체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인도의 아잔타 석굴을 비롯하여 중국의 운강석굴, 용문석굴, 도황석굴, 하남성 안양 대주석굴의 탁본과 한국의 석굴암 탁본 등을 소개하는 '석굴사원 탁본전'이라고도 할 수 있다. 불교석굴사원의 시작인 인도의 아잔타 32굴의 여래상 탁본을 비롯하여 중국의 운강석굴의 수하 반가사유상 탁본, 돈황석굴의 막고굴 표지석 탁본 등 석굴사원을 대표하는 작품들이 전시된다.

아잔타 석굴은 인도의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주의 북동부에 위치한 도시 아잔타 인근에 있는 불교 석굴이다. 기원전 2세기부터 5세기에 걸쳐 지어진 석굴들로 보존 상태가 뛰어난 것으로 유명하다. 석굴의 내부에는 인도의 불교 예술 발달상을 보여주는 벽화와 부조들이 남아 있다. 이번 특별전의 탁본으로 감상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작품 중에는 국보 제29호인 석굴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탁본을 비롯해 실상사파종비천상 탁본, 천은사사천왕(고려시대) 탁본, 성덕대왕신종 비천상 탁본, 상원사 범종 비천상 탁본 등 범종의 비천상 탁본과 국보 제53·54호인 전라남도 구례군 연곡사 동부도·북부도에 새겨진 사천왕, 팔부중 탁본도 선보인다.

석굴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은 석굴암 안쪽의 주벽에 새겨진 조상 가운데 입구에서 두 번째 상으로 대범천·제석천의 2천과 십대제자의 중간에 위치한 보살상이다.

두 보살상은 한결같이 원형의 소박한 두광을 지닌다. 머리에는 삼면의 보관을 썼고 귀와 가슴 등에 구슬로 된 장식이 달려 있다. 천의(天衣)는 욕심으로 점철되어 있는 현세의 불행한 과보 속에 얽매어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주로 사찰의 범종에서 볼 수 있는 비천은 천계에 머물면서 하늘을 날며 춤·향·꽃 등을 불보살에게 공양하는 천인으로, 그 모습에 따라 공양비천, 주악비천, 산화비천 등으로 불린다. 인도 고대 신화에 나오는 악천(樂天 · Aspara)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지만 불교에 수용되면서 주로 악기를 연주하거나 꽃을 뿌리는 천인으로 조각·회화·공예를 장엄하는 데 표현되었다. 불교의 정토세계에서는 악기를 연주하고 허공을 날면서 꽃을 뿌리는 등 부처님을 공양하는 역할로 등장한다. 한국의 비천은 범종의 주악비천이 으뜸이자 전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탁본으로 전시되는 성덕대왕신종 비천상과 상원사 범종 비천상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천왕은 수미산 정상의 중앙부에 있는 제석천을 섬기며, 불법뿐 아니라, 불법에 귀의하는 사람들을 수호하는 호법신이다. 동쪽의 지국천왕, 서쪽의 광목천왕, 남쪽의 증장천왕, 북쪽의 다문천왕을 말한다.


석굴암보현보살 탁본


석굴암문수보살 탁본

팔부중은 불법(佛法)을 수호하는 천(天)·용(龍) 등 여덟의 신장(神將)을 말한다.

이번 특별전에는 인도의 부처님 일대기 석불 탁본 등 국내 최초로 공개되는 다양한 인도 탁본들과 중국 당나라 시대의 묘법연화경 탁본, 천불고 탁본, 오대시대에 제작된 특이한 모습의 관음탁본, 소림사가 자랑하는 달마대사 탁본 등이 소개되며, 일본이 자랑하는 나라 도다이지(東大寺) 대불 광배의 불보살상, 야쿠시지(藥師寺)탑의 수연부를 장식한 좌우 비천상과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의 환희불, 티베트의 문수보살상 탁본도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작품으로는 하남성 안양 대주석굴에 새겨져 있는 '석가거세전법정사' 탁본이다. '석가거세전법정사 탁본'은 북위시대에 조성된 하남 안양 대주석굴에 새겨진 중국 불교사 최초의 도상으로 평가받고 있는 작품으로 석가모니불 이후의 계보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 작품은 부처님 이후 법을 전해 받은 가섭존자로부터 스물 네 분의 조사들이 대좌형식으로 6층에 나누어 배치되어 있으며, 움직임도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어 불교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고판화박물관 한선학 관장은 "요즘은 문화재를 탁본하는 일이 매우 어려운 데다 온전히 남아 있는 유물도 많지 않아서 이번 특별전을 통해 희소성 있는 작품들을 소개하고, 그 작품들을 통해 아시아 여러 나라 불교미술의 다양성을 통해 보편성과 차별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관람을 부탁했다.

고판화박물관은 특별전 기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1박 2일의 템플스테이와 탁본 체험도 진행한다. 문의 (033)761-7885.

청허 서응 스님 한국화 선서화 展

부산시민회관 9월13~18일
수행 · 삶 담긴 선서화 50여 점


청허 서응 스님 作, 해수관음상

부산 천마산 자락의 묘심사 주지 청허 서응 스님이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부산시민회관 제1전시실에서 '청허 서응 스님 한국화 선서화' 展을 연다.

청허 서응 스님은 이번 전시에서 수행의 결실과 삶을 오롯이 담아낸 작품 50여 점을 선보인다. 스님의 그림은 관음보살, 달마대사 등 불교적인 소재부터 재래시장의 서민 풍경, 자연, 도시 등 다양한 모습을 담고 있다.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담고 있는 청허 서응 스님의 그림은 바쁜 일상에 쫓기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작은 휴식과 따뜻함을 선사한다. 스님은 자신의 그림을 통해 부처님의 가피로 대중이 바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소박한 마음으로 전시회를 준비했다고 한다.

스님은 "지금까지 그림 그리는 일을 수행의 한 방편으로 삼아왔다. 조금만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헛된 생각을 하면 다른 채색이나 그림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작품을 만들 때 늘 기도 수행하는 마음으로 한다. 그림이란 결국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불화뿐만 아니라 주변의 소소한 경치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에서도 우리는 마음의 안식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에 그러한 부분도 정겹게 표현해보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전시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마련했다"고도 전했다.

청허 서응 스님은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선서화과를 졸업했다. 전국 선서화공모전에서 특선을 수상했으며 전국미술대전에서 입상했다. 각종 단체전과 회원전에 다수 출품했다. (051)242-1608.

박재완 기자

'안윤지의 춤 舞發現 舞興'

9월 25일 오후 5시
국립부산국악원 소극장 예지당



이매방의 춤맥을 잇고 있는 무용가 안윤지〈사진〉가 첫 개인공연을 갖는다. 안윤지는 9월 25일 오후 5시 국립부산국악원 소극장 예지당에서 '안윤지의 춤 舞發現 舞興'을 개최한다.

김명자 문하에서 이매방류 승무와 살풀이춤을 배우고 있는 안윤지는 이번 공연에서 자신의 손짓, 발짓, 눈빛에 스승의 가르침을 자신의 색깔로 담아낸 '안윤지의 춤'을 선보인다.

안윤지는 공연에서 살풀이춤(이매방류 임이조제)과 화선무(임이조류), 승무(이매방류 임이조제)를 선보인다. 살풀이춤은 1935년 부민관에서 처음 초연됐으며, 故 한성준에 의해 살풀이춤으로 명칭이 고정됐다고 한다.

화선무는 꽃 그림과 부채가 어우러진 춤으로 꽃 화(花), 부채 선(扇) 자를 써서 '화선무'라고 이름이 붙여진 창작 전통춤이다.

승무는 염불, 도드리, 느린타령, 자진타령, 굿거리로 구성되며, 해탈과 희열을 북으로 표현한다. 1987년 故 이매방이 승무 보유자로 지정됐다. 특히 힘과 신명이 뛰어난 춤사위, 굽히고 돌리는 연풍대와 호화로운 장삼놀음, 춤의 경건함을 밟아가는 듯한 매서운 발 디딤새, 세차고 멋들어진 북가락이 일품이다.

안윤지는 "이매방 선생님의 춤맥을 잇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셨던 스승님의 정신을 좇아 저 역시 김명자 선생님 문하에서 이매방류 승무와 살풀이춤을 새로이 배우며 정진하고 있다"며 "손짓 하나, 발짓 하나, 눈빛 하나에 스승님의 말씀을 안윤지의 색깔로 담아내려 한다"고 밝혔다. (051)811-0114. 박재완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본사
황악산 직지사
회 주 황산 혜창
주 지 운해 법보
직지사복지재단 대표 신산 법성
직지사승려복지회 회장 웅산 법등
사부대중일동
경북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95 www.jikjisa.or.kr
☎ (054)429-1700~3, 429-1713~15 Fax (054)436-3174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